

#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뜨거운 감자’

■여야, 의석수 증감 유불리 따져 고심

새누리,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의원정수 유지”...반대

새정치, “지역주의 타파·비례성 강화”...도입 적극적

내년 총선에 도입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정계특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당으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30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또다시 맞섰다. 정치혁신 의제로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완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의원정수 증원 주장과 연계해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 발언에서

“의원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며, 현행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면서 “지역구를 일부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언급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는 당내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보고서로부터 비롯된 것

로 보인다.

여의도연구원은 ‘새정연 혁신안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순서를 잘못 끼운 단추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증원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면서 “문재인 대표도 진화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수 축소와 과반 의석 붕괴 ▲호남에서 상징적 의석 확보 대가로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약진 허용 ▲관성적인 여소야대 ▲다당제에 따른 대통령제의 표류 등을 예상 결과로 추정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영

남에서 25~30% 정도의 평균적인 반(反) 여당 지지 성향은 한 석의 국회의원도 못 만들어 내고, 이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상당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는 따르면 19대 총선 의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246석을 제외한 비례 54석이 권역별 비례 의석으로 할당하는 독일식 제도의 경우, 새누리당은 현재 152석이 137석으로 15석 감소하고,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도 127석에서 117석으로 10석 줄어들었다.

또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2대 1로 배분하는 일본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100석의 비례 의석을 새누리당이 45석, 민주통합당 40석, 통합진보당 11석, 자유선진당 4석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나왔다. 지역구 200석은 추산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종걸 “伊 해킹팀, 北 거래교섭 받았다”

‘국정원 해킹’ 토론회서 밝혀...“특검·국정조사 추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국정원 해킹 사찰 논란과 관련,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업체인 ‘해킹팀’은 북한으로부터 거래 교섭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 주최한 국정원 해킹사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북한이 (해킹 프로그램)를 매입했고 이탈리아 해킹팀에 북한과 한국의 안보 정보가 뒤섞였을 위험을 배제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에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별감사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 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임무 과장이 삭제했다는 파일 51건의 대부분이 실험용이라는 말을 믿기 어렵다”며 “(여야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국정원은) 삭제 파일 가운데 일부가 복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미군의 탄저균 배발사고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한 (탄저균) 훈련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했다”며 “탄저균 사건의 전말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독일 수준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 당명 바꾸나

안철수 “당 혁신 성공하면”

김한길 “혁신과정 검토 가능”

문재인 “지금 당명 불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개정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의 ‘저작권’을 가진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이 성공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당명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30일 “당 혁신이 성공, 당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당명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용 없이 이름만 바꾸는 건 구태”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과 비하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김한길 전 대표도 “(당명 개정을)혁신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진정한 혁신과 통합의 결과물이어야 국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지금 당명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당원들도 여러 차례 당명 변경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며 당명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세력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하지만,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이 길어 부르기 어려운데다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민주당’으로 호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당명 개정 주장이 계속됐었다.

이에 따라 당명 개정은 혁신 작업이 일단락된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 당명으로 등록된 원외정당이 있어 이 정당과 합당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상황여서 당명 개정 논의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장외 신당 세력과 원외의 민주당이 결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민주당’의 당명을 다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민주당으로 당명이 개정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유사 명칭이라고 강력 제동을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경주일보 ☎ 062-222-8111**



이희호 여사(왼쪽)와 이희호 여사(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2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이희호 여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왼쪽)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2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이희호 여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호 여사 내달 5일 이스타항공편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5일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비행기로 방북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이희호 이사장이 방북에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이용한다”며 “방북 경로는 서해 직항로”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떠나며,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8일 오전 11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설립해 2009년 첫 취항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다.

이 여사는 평양 체류시 북한 측과 합의한 대로 평양산원·애육원·아동병원·묘향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숙소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조문 방문시

사용한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호텔로 정해졌다. 이 여사가 평양 방문시 전달할 선물은 이사장이 직접 뜯 털목도리와 의료·의약품 등이다.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방북단 규모는 2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며 “수행원 명단은 출발 당일인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이 여사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성 실무접촉 당시 북측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는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항공사들과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 장병완 “광주 백운고가 철거 설계비 10억 확보”

백운고가 철거 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설계비 10억원을 최종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 남부 관문인 백운고가는 백운교차로 차량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급경사·급커브로 건설돼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하는 위험 시설물이란 지적도 받아왔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연계해 백운고가를 철거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

족·도시철도 2호선 건립 지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백운고가 철거되면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주변 미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하루속히 사업이 완공되도록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최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